



대화유.씨.피 창립 35주년 기념식 개최 풍성한 덕담 릴레이 속 임직원 재도약 다짐

대화유.씨.피(대표 김정전)가 지난 10월 10일 본사 3층 소회의실에서 유희윤 중앙제지 전 회장, 박상조 한성로타리클럽 회장, 김효전 영광김씨대중회 회장, 이정빈 전 서울대학교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35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글 | 조갑준 기자 kjcho@print.or.kr

이날 기념식에서 김정전 사장은 “35주년 기념식을 준비하지 않을까도 생각했었는데, 지난 9월 14일 인쇄문화의 날에 대통령 표창을 받은 것도 있고, 생일이라는 것이 지나가면 다시는 오지 않은 기념일이라는 생각에 행사를 준비하게 됐다. 35주년이 되기까지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으며, 직원들이 큰 도움이 됐다. 앞으로 100년을 이어갈 수 있는 기업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인사말 이후에는 축하객들의 덕담 릴레이가 펼쳐졌다.

먼저 김 대표와 오랜 친분을 유지해온 유희영 중앙제지 전 회장은 “대화유.씨.피가 창립한지 35주년이 되는 뜻 깊은 날에 덕담을 하게 돼 영광이다. 인쇄업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아는데, 슬기롭게 회사를 잘 운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회봉사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 대화유.씨.피는 지금보다 수백 배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임직원들도 대화유.씨.피와 함께 성장하길 바란다”고 덕담을 전했다.

박상조 한성로타리클럽 회장은 “뜻 깊은 자리에 초대해 줘서 영광이

고 어려운 경제 여건을 이겨내면서 이렇게 성장하고 35주년을 맞게 된 것에 대해 존경스럽고 축하의 말을 전한다. 앞으로는 지금보다 훨씬 더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발전에 임직원들이 함께 힘을 합쳤으면 좋겠다. 올해 중구상공회 회장 피선, 대통령 표창 수상 등 경사가 겹쳤는데, 앞으로도 봉사활동과 우리나라 인쇄문화 발전을 위해 더욱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효전 영광김씨대중회 회장은 “창립 35주년을 맞은 대화유.씨.피.의 생일을 정말 축하하고, 경의를 표한다. 대화유.씨.피가 탄탄하고 내실 있는 중소기업으로 성장한 것에 대해 감격스럽게 생각하고, 향후에는 더욱 큰 기업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덕담이 끝나자 김 대표의 오랜 고향친구인 이정빈 전 서울대학교 교수가 축하객들을 대표해 건배제의를 했으며, 이후 축하객들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만찬을 함께 즐겼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서 대화유.씨.피. 임직원들은 행사장을 찾은 축하객들에게 단체로 인사를 하면서 재도약의 의지를 다졌다.☺